표준 화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전영우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머리말

1990년 10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 공동 기획으로 벌인 화법 표준화 사업이 27개 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표준 화법을 결정할 때 검용의 예와 허용의 예를 인정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 국어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기획 당사자의 신중성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2. 재검토의 필요성

2.1. 화법이 갖는 의미

화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문법에서 쓰는 'narration'이다. 남이 말한 것, 생각한 것, 또는 자

신이 어떤 기회에 말한 것, 생각한 것을 화자(話者) 또는 필자(筆者)가 청자(聽者) 또는 독자(讀者)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본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이 직접화법이고, 화자가 본래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고쳐서 전달하는 형식이 간접화법이다.

“너무 바쁘다.”고 그는 말했다. (직접화법)

그는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 (간접화법)

둘째, 말하기와 듣기의 학문적 체계로 쓰는 ‘speech’이다. 이것을 화법이라 일컫게 된 효시는 아마 1967년 교육출판사의 ‘화법 원리’일 것이다. 이후 각 대학에 화법 강의가 시작되고 마침내 1996학년도부터 전국 고등학교 국어과에 화법이 정식 과목으로 설치 운영되어 온다.

스피치를 개관하면 이 분야는 예술과 과학에 토대를 두고 언어 생활의 범주를 망라한다. 대화·연설·토의·토론·회의 등을 중심으로 연극과 방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논의되는 세부는 발음과 음성 표현 문제를 비롯하여 정보 공유를 위한 설명, 남의 의지·신념·태도·행동 등에 변화를 주는 설득, 그밖에 보고·서술·묘사·환담·감동 목적의 전달 및 표현 기능이다. 말하기는 듣기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청법(聽法)이 당연히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화법’의 본질을 좀더 살펴본다.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언어를 통하여 문화를 축적하고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언어란 말과 글을 일컫는데 말은 글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 소통은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른 화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반드시 규범과 예절을 지켜 인격을 도야하고 밝고 명랑한 언어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화법의 유형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그리고 의사 소통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른 화법에 대화, 연설, 토의, 토론, 회의 등이 있고, 의사 소통의 목적에 따른 화법에 설명, 설득, 보고, 환담 등이 있으며, 의사 소통의 상황에 따른 화법에 소개하고 소개받을 때, 위로와 격려, 축하, 칭찬, 비평 등의 말하기와 전화 대화가 있다.

이들 각 화법의 특징을 알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 말하기 목적과 말하기 상황에 맞는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화법의 본질이다.

셋째, ‘표준 화법’은 대체로 ‘언어 예절’을 가리킨다. 요컨대, 호칭어, 지칭어, 경어, 인사말 등으로 한정되는 의미이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언어 생활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목표 아래 확실한 기준을 정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사업을 벌인 것이다. 일반의 여론 수집은 민간 언론사가 맡고, 정부는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 화법안을 국어심의회의에 회부 ‘표준 화법’으로 확정하여 공식으로 어문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았다.

2.2. ‘표준 화법’의 당위성

물론 일각에서는 사람마다 각자 자연스럽게 쓰는 화법을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성과 다양성을 내세우기에는 우리의 화법 생활이 크게 난맥을 이루고 있다.

방송의 일부 출연자가 자기 아내를 가리켜 ‘내 부인’, ‘우리 와이프’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어느 젊은 부부와 시어머니, 시동생이 함께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동생은 형수를 ‘누님’이라 부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오빠’라 부르지 않나, 시동생은 자식에 기대어 ‘삼촌’이라 하고, 시누이를 자식에 기대어 ‘고모’라 한다.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대학생 때처럼 ‘형’이라 부르는 일까지 있다.

아침의 인사말만 하더라도 과거 우리에게 좋은 말이 많았는데 텔레비전 연속극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버젓이 ‘좋은 아침’이란 말을 주고받는다. 영어의 ‘굿모닝’을 연상케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일부 작가는 이를 진화하여 유행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한 모임의 건배 제의 시에 건배! 축배! 등의 말이 있으나 우리에게도 독자적인 말을 표준 화법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표현도 좋으나 화법에 관한 최소한의 규범은 마련되어야 한다. 되도록 구체적인 것, 생활 주변에서 맞부딪치는 사례들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표준 화법’이다. 화법 표준화는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문화적 단절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미를 갖게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언어 생활의 문제를 일반인이 다시 생각해 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대화할 때 자신이 없어 기댈 기준이 필요한데 표준 화법이 그 해답의 열쇠를 제공했다. 교통 질서 문제가 논의될 때 언어 질서 문제도 마땅히 거론해야 한다. 교통이 막히고 무질서한 것보다 언어가 막히고 무질서한 것이 더 혼란하기 때문에 언어의 규범이 교통의 규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 일에 참여한 14명 자문위원들이 연령상으로 모두 50대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지나치게 전통적으로 화법 규범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회에서 언중(言衆)들 사이에 표준 화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쉬운 점은 세대, 계층 지역간에 많은 시각차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답을 못 주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너무 전통적인 규범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다.

사회 변화와 함께 경어법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세대 차이 때문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부간의 호칭인 ‘자기’도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 화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났으나 이 말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허용하는 선에서 문제의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장인, 장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으로 호칭하는 것을 허용한 사례는 사회 변동에 따른 언어의 변화상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3. 문제의 제기

3.1. 논의의 대상

‘자기’

남편 호칭어의 ‘자기’ 문제이다. 요즈음 젊은 신혼 부부들, 특히 연애 결혼을 한 부부들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써서 안되는 말로 처리했다. 젊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을 ‘자기’라 지칭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실이 거의 그러할 뿐 아니라 ‘당신’이 원래 재귀대명사에서 유래한 사실과 공통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제외한 것이다.

아내를 ‘자기’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아내가 남편한테는 ‘자기’라고 지칭해서 안 되지만 남편이 아내한테는 ‘자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주장과,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이므로 차별을 두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시 부부 사이의 지칭어로 옳지 않다고 하여 표준 화법에서 제외한 것이다.

우리말에서 부부간의 호칭에 ‘자기’를 쓰는 지역이 있다. 충남 논산 거주, 한 교사의 제보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자기’ 또는 ‘임자’라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기라 한다는 사례 보고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가 부르는 말은 없고 알리는 신호가 있을 뿐인데 남편쪽 신호가 ‘어이’, ‘여보’이고, 아내쪽 신호가 ‘아요’, ‘여보’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용하게 되는 대명사는 ‘이 녀’, ‘임자’, ‘자기’, ‘당신’ 등이라는 한 국어학자의 주장이 있다. 여기서의 ‘이 녀’은 지역성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자기’는 명사일 때, 자기 중심, 자기 발견,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자기

암시라 할 때처럼 그 사람 자신이란 의미가 있고, 대명사일 때

“영수는 자기 동생을 아주 귀여워한다”
“자기가 뭘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할 때처럼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말이 있다. 우리 문법에서는 ‘자기’, ‘당신’, ‘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귀대명사’라 하나 달리 ‘돌이킴대이름씨’라 하기도 한다.

‘자기’는 ‘당신’과 동격이므로 지칭어에 넣을 수 있고, 동시에 호칭어로 넣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성으로 보아도 타당하다. 현재 쓰이고 있는데 써서 안 된다고 제약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기’는 살리고 오히려 점차 세력이 약화되는 호칭어, 지칭어의 ‘영감’과 지칭어의 ‘바깥 양반’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젊은 세대 대다수가 쓰는 말을 기성 세대의 시각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인·장모와 시부모가 사위와 며느리에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처음 허용한 바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배제한 경우도 또한 이해가 안 간다. 이 점 지나치게 전통에 얽매인 때문이 아닌가 한다. 서구적인 세계화의 물결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압존법’

‘압존’은 어른 공대가 그보다 더 높은 어른 앞에서 줄어진다는 의미이고, ‘압존법’은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압존이 되는 높임법이다. 가령,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라 하는 따위이다. 그러나 압존법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오셨습니다.”

라 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형이 저를 때려요.”와 “아버지, 형님이 저를 때려요.”

“할아버지, 장에 간 아버지가 옵니다.”와 “할아버지, 장에 간 아버지가 오십니다.”

“선생님, 내일 큰형과 같이 올까요?”와 “선생님, 내일 큰형님과 같이 올까요?”

“사장님, 과장이 옵니다.”와 “사장님, 과장님이 오십니다.”

전자가 압존법이고, 후자가 비압존법이다. 존대 표현 차원에서는 알맞게 지켜야 할 존대법 규칙이 압존법이지만 요즈음에 와서 많이 해이돼 가는 추세이다. 지나치게 이에 집착하면 시대 흐름을 외면하는 고루한 느낌마저 주기도 한다.

“동원아 애비 왔나?”와 “동원아, 아버지 오셨느냐?”

의 예문에서 화자(話者)는 할머니요, 청자(聽者) 동원이는 손자이고, 주체가 동원의 아버지라 할 때, 전자보다 후자가 자연스럽다. 또, 교육 측면에서 보아도 바람직하다.

- (1) 누님, 어머니께서 가십니다.
- (2) 큰형님, 작은 형님이 가십니다.
- (3)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가십니다.
- (4)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십니다.

화자는 물론 ‘나’이다. (1)은 청자가 주체보다 낮으니 당연하다. (2), (3), (4)는 청자가 주체보다 사실상 약간씩 높다. 따라서 주체 경어법을 써도 무방하다. 다만 (4)의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압존법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 오히려 (4)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는 경어법 변

친의 일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 배경에는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사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언어의 존경법 형식에서 윗사람에 관하여 말할 때, 청자가 누구든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말해야 하는 것인데, 일부 사원 교육 현장에서, “사장님, 이 과장 어디 갔습니까?”로 말해야 한다고 잘못 가르치는 예가 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사장, 이 과장 어디 갔습니까?”와 같이 일본식으로 가르치는 예마저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4. 발전적 해법

4.1. 옛사람의 가르침

우리 선인들은 언어 예절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간추려 본다.

“무릇 남의 자제된 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나직이 하고 숨을 가라앉혀서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요, 큰소리로 떠들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리서는 안 된다. 부형이나 웃어른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말씀이 있으면 다만 머리를 숙여서 받아들일 뿐 함부로 의논해서 안 된다. 웃어른의 단속이나 책망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명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잠잠히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천천히 입을 열어 조목조목 자세히 아뢰기를, ‘그 일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우연히 잊었습니다.’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우연히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고 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한다면 어른의 마음을 손상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사리가 스스로 분명해질 것이다. 벼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남의 선하지 못한 것을 들으면 마음 속에 감추어 두어서 소리내어 남에게 말하지 말고 마땅히 상대에게 충고해 그 허물을 알아서 고치게 해야 한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한번 한 말이 알맞지 않

으면 천 번 말해도 소용이 없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들어오는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햇슴과 같고, 남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한 마디의 짧은 말이 귀중하여 천금의 값이 있기도 하고, 한 마디의 말이 남을 해쳐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기도 하다. 입은 곧 남을 해치는 도끼요, 말은 곧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어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느 곳에서나 굳게 지켜져 몸이 편안할 것이다. 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웬만큼 할 것이요, 지니고 있는 속마음은 전부 드러내놓지 말며, 호랑이의 입은 몇이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다만 인정의 두 가지 마음을 두려워할 것이다. 술은 다정한 벗을 만나면 천 잔이라도 적을 것이요, 이야기는 할 기회에 맞지 않으면 한 마디라도 많은 것이다.”

“말과 웃음은 간결하고 무게 있게 할 것이요, 시끄럽게 하여 절도를 지나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웃어른이 굳이 붙잡으면 마지못해 앉아 있으면서도 용의(容儀)를 가다듬고 마음을 밝게 할 것이요, 간사스런 소리를 내거나 얼굴 표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예절에 맞지 않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 남의 귀에 입을 대고 말을 속삭이지 않는다.”

“많은 말과 많은 생각은 마음씨에 매우 해로우니 일이 없으면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간직할 것이다. 남을 접할 때에는 말씨를 간결하고 신중하게 택해야 한다. 이러한 뒤에 말을 하면 말씨가 간결해진다. 말씨가 간결한 것은 도에 가까운 것으로 이는 마땅히 중신토록 마음에 지녀 실천할 일이다.”

“말할 때에 몸을 비틀지 말며, 머리를 흔들지 말며, 손을 놀리지 말며, 무릎을 달싹이지 말며, 발을 떨지 말며, 눈을 깜빡이지 말며, 눈동자를 굴리지 말며, 입술을 쉼룩이지 말며, 침방울이 튀게 하지 말며, 턱을 피지 말며, 수염을 문지르지 말며, 혀를 내밀지 말며, 손뺨을 치지 말며, 손가락을 튀기지 말며, 팔을 부르짖지 말며, 얼굴을 쳐들지 말며, 자리에서 문치적거리지 말며, 부채의 머리쪽이나 면을 거꾸로 세우거나 던지지 말며, 허리며 끝을 두르지 말 것이다.”

“그 말에 앞서 실천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말로 할 것이다. 배운 사람은 말에서 뜨고 행동에서 민첩하려 한다. 옛사람이 말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그 스스로의 행동이 그 말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조선조 정조 때의 문장가 이덕무 등이 남긴 말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언어 예절을 망라한 구체적인 사례 지적이므로 오늘에 와서도 되살릴 내용이 많다.

4.2. 고운 말 쓰기

고운 말 쓰기에 역행하는 험구(險口), 금기어(禁忌語), 비속어(卑俗語), 은어(隱語)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험구’란 남의 흠을 들추어내어 헐뜯기 좋아하는 입,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단지 험구라 해도 그 중에 풍자·핀잔·야유·비판·충고·배격·냉소·조소 등의 숨은 의도가 있어서 이것이形形色색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대변에 나쁘다든가 불필요하다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험구로 말미암아 수십 년 사귀어온 친교(親交)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고, 극단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있다. 처음부터 악의를 품은 험구는 논외로 한다 해도 호의 어린 험구도 때로 인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할 일이다.

‘금기어’는 험구와는 다르나, 관습상 듣는 사람이 꺼리고 싫어하는 말이다. 말의 어음 자체가 불길하든가, 혹은 불길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장소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이를테면, 남녀 혼사를 말하는 장소에서는 ‘갔다·끊어졌다·떨어졌다·깨지다·식다·싫다·죽다·않다’ 등의 말이 사위스럽다 해서 쓰지 않는다. 또 새로 지은 건물의 축하 모임에서 ‘불탄다·넘어지다·날다·가다’ 등의 말 또한 사위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것이 하나의 속신(俗信)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예의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기어(忌語)의 예는 그렇고 금어(禁語)의 예를 본다. 남이 그 말을 들으면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는 말이다. ‘노처녀·과부·홀아비·트기·첩의 자식’과 같이 사람 신분과 관계되는 것과 ‘격다리·난쟁이·딱부리·육손이’와 같이 신체상 특징에 관계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 관

계되는 그 고장 사람을 꼬집는 표현이 있고, 어느 종교와 종파에 대하여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점 크게 삼가는 것이 예의이다. 비어(卑語)는 속어(俗語)와 비슷한 종류인데 속어보다는 더 짐잡지 못하고 천한 말이다. 비어에 ‘낮춤말’과 ‘낮은말’이 있다. 낮춤말은 ‘아버·어미·할아버·할미·오라비’ 등이다. 낮은말은 좀더 천하다. ‘팔때기·배때기·대갈통’ 등이다. 욕설과 폭언은 말 자체보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인격을 깎아 내린다. 필요할 때 낮춤말은 쓴다고 하지만, 낮은 말은 말이 천하니 삼가야겠고 욕설과 폭언은 절대로 안 쓰는 것이 좋다. 속어는 일반적으로 속되게 통하는 말이다. 보통으로 속된 말이라고 하는데 품위가 높은 말은 없고 거의 낮은 말이다. ‘왈가닥·작살내다·모가지’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밖에 학생사회·직업사회·군대사회·종교사회·연예계 등 각 집단 의 성원 사이에 소통되는 말이 있다. 넓은 뜻의 의미로는 이것들이 모두 은어이지만 좁은 뜻의 은어라면 치우쳐지고 반사회성(反社會性)이 강한 집단, 즉 도둑·소매치기·도박단·부랑아·걸인·창녀들 사이에 쓰이는 특수어를 이른다. 이를테면 ‘뺑뺑·씻가루·꼰대·속도위반’ 등의 말이다. 이 같은 집단에서는 그 나름의 특이한 조직·모럴·사고(思考) 등이 일반 사회인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은어는 어느 일정 사회에 숨겨진 말이어서 그리 떳떳하지 못할뿐더러 언어 순화 정신에 벗어난다. 지나치게 자주 쓰이는 외국어·외래어 역시 고운 말 쓰기와는 확실히 거리가 멀다.

5. 마무리

‘언어 예절’ 중심의 ‘표준 화법’이 성안될 당시, 사계 권위로 구성된 자문 위원들의 폭넓은 논의와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친 뒤 국어심의회에 회부되어 재검토 후에 확정된 것인 만큼 ‘표준 화법’에 긍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요구와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지적한 ‘자기’라는 부부간의 호칭어·지칭어의

배제는 재론해 볼 여지가 있고, ‘압존법’이 오늘날 엄격한 틀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권위주의의 상징인 압존법을 종전과 같이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표준 화법’의 21. 편지 쓰는 법과 23. 생일 축하 가운데 축의금의 단자와 봉투의 문구, 25. 문상 가운데 조장과 조진, 조위금 봉투 및 단자, 부고하는 법, 국한문 혼용 부고, 한글 부고 등은 제외하는 대신 별도 ‘표준 작문’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앞에 말한 내용을 지칭어·호칭어·경어법·인사말 등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말과 글이 혼용되는 양상을 피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구두 표현어가 중심인 ‘표준 화법’에서는 ‘발음 실현’과 ‘음성 표현’에 따른 언어학적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왕에 ‘표준 발음법’이 제정 공표된 바에야 더욱 그렇지 않은가. 정서법의 보급으로 문장 생활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발음법의 보급으로 언어생활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를 위하여!’가 건배 제의 용어로 이미 결정된 바 있는데 ‘건배’도 동양 3국이 공용하므로 함께 쓰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옛사람의 가르침’과 ‘고운 말 쓰기’ 장려로 이어지면, ‘표준 화법’이 명실 상부하게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 고 문 헌

- 김중훈(1984), 국어경어법연구, 집문당.
 국어의 표준 화법(1991),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말의 예절(1991),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
 표준 화법 해설(1992), 국립국어연구원.
 전영우(1993), 교양인의 화법, 창조사.
 한국 어문 규정집(2001), 국립국어연구원.